

## 2026 국가직 9급 회계학 총평, 문제 및 해설 [김성수 교수]

[ ]

말문제 : 11문제

계산문제 : 9문제

재무회계 : 14문제

원가회계 : 4문제

정부회계 : 2문제

**한줄평 : 전제적일 쉬운난이도에서 곳곳에 함정을 주의하자!**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재무회계 중심의 전형적인 구성 속에서 이론과 계산이 균형 있게 출제된 종합형 시험으로 평가된다. 총 20문제 중 말문제가 11문제, 계산문제가 9문제로 구성되어 이론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체감 난이도는 중 혹은 중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무회계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시험의 핵심을 이루었다. 특히 재무보고의 질적특성, 재고자산 평가, 금융자산 분류, 총당부채,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 등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와 함께,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과 연계된 계산문제가 출제되어 단순한 개념 암기를 넘어 회계 흐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였다. 일부 문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어 수험생의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원가회계는 제조원가 계산, CVP 분석, 정상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등 핵심 영역 위주로 출제되었다. 계산 자체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고정원가가 구간에 따라 변동하는 CVP 문제나 완성도를 추정하는 종합원가계산 문제는 조건 해석이 중요하여 수험생 간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회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국가회계 기준이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으며, 지문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전형적인 이론 문제 형태였다. 세부 문구 차이를 이용한 오답 유도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요구되었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와 표준적인 계산문제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재무제표 간 연결 구조를 활용한 문제, 감가상각과 손상 및 처분이 결합된 문제, 그리고 조건이 복합적으로 주어진 원가 계산 문제는 중상 이상의 난이도를 형성하였다. 특히 계산 과정 자체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시험은 단순 암기나 유형별 풀이에 의존한 학습으로는 고득점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회계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사고력을 요구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향후 대비를 위해서는 개별 개념 학습에 그치지 않고 재무제표 간의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이해와 다양한 유형의 계산 문제에 대한 반복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 ) ~ (다)에 들어갈 말을 A ~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A. 비교가능성	B. 검증가능성	C. 적시성
----------	----------	--------

	<u>(가)</u>	<u>(나)</u>	<u>(다)</u>
①	A	B	C
②	B	C	A
③	C	A	B
④	C	B	A

1. ④

(가)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다.

(나) 검증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 비교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2.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 200,000이고, 비용으로 인식한 급여는 ₩ 150,000이다. 기말 미지급급여가 ₩ 120,000일 경우, 기초 미지급급여는?

- ① ₩ 130,000
- ② ₩ 150,000
- ③ ₩ 170,000
- ④ ₩ 190,000

2.

IS조정 : (-)₩150,000

BS조정: (-)₩50,000( ₩170,000 기말 ₩120,000)

CF : (-)₩200,000

3. ( )한국의 기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 30,000, ₩ 10,000이며, 기말 자산과 부채는 각각 ₩ 50,000, ₩ 20,000이다. (주)한국은 기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현금배당을 선언 및 지급하였다. 당기순이익이 ₩ 12,000일 때, (주)한국이 기중에 지급한 현금배당은?
- ① ₩ 2,000
  - ② ₩ 8,000
  - ③ ₩ 10,000
  - ④ ₩ 20,000

3. ①

- (1) 기초자본 : ₩30,000-₩10,000=₩20,000
- (2) 기말자본 : ₩50,000-₩20,000=₩30,000
- (3) 자본증가 : ₩30,000(2)-₩20,000(1)=₩10,000
- (4) 현금배당 : ₩10,000(3)-₩12,000=(-)₩2,000

4.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 ②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③ 위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 중인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 ④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 ②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을 측정한다.

5. 다음의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 자본금이 증가한다.
-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 ① 무상감자 결의 및 실시
- ② 주식배당 결의 및 교부
- ③ 자기주식의 소각
- ④ 주식의 액면발행

5. ②

주식배당 : 이익잉여금이 자본금되는 것

6. 원가자료를 이용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기초)	₩ 200	○ 직접재료원가(기말)	₩ 100
○ 직접재료 매입액	₩ 400	○ 직접노무원가	₩ 500
○ 감가상각비 - 본사건물	₩ 100	○ 감가상각비 - 공장설비	₩ 50
○ 재공품재고(기초)	₩ 1,500	○ 기타 제조간접원가	₩ 300
○ 재공품재고(기말)	₩ 1,000		

- ① ₩ 1,850
- ② ₩ 1,900
- ③ ₩ 1,950
- ④ ₩ 2,000

6. ①

- (1) 직접재료비 : ₩200+ ₩400-₩100=₩500
- (2) 제조간접비 : ₩50+ ₩300=₩350
- (3) 당기총제조원가 : ₩500(1)+ ₩500+ ₩350(2)=₩1,350
- (4) 당기제품제조원가 : ₩1,500+ ₩1,350(3)-₩1,000=₩1,850

7.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1,000, 단위당 변동원가 ₩ 800인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생산·판매량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판매량	총고정원가
2,000개 이하	₩ 360,000
2,000개 초과	₩ 440,000

(주)한국이 ₩ 60,000의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생산·판매량은? (단,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1,800개      ② 2,100개      ③ 2,200개      ④ 2,500개

7. ④

- [2,000이하] 구간  
 $(₩1,000 - ₩800)Q - ₩360,000 = ₩60,000$   
 $Q = 2,100$ 개
- [2,000개 초과] 구간  
 $(₩1,000 - ₩800)Q - ₩440,000 = ₩60,000$   
 $Q = 2,500$ 개

8.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③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④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분류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8. ④

기능별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분류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9. 다음은 장부마감 전 원장의 매출채권 계정과 소모품비 계정이다. 장부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채권		소모품비	
기초	6,000	현금	10,000
매출	50,000	소모품	8,000
		현금	42,000

- ①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해 대변에 차기이월 ₩ 14,000을 기록한다.
- ②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지 않다.
- ③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다.
- ④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으로 이익잉여금이 ₩ 2,000만큼 증가한다.

9. ④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으로 당기순이익 감소하여 이익잉여금이 ₩2,000만큼 감소한다.

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 처분 및 대체는 없다)

계정과목	기초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 ① 당기순이익 ₩ 400,000, 당기포괄손실 ₩ 500,000
- ② 당기순이익 ₩ 400,000, 당기포괄이익 ₩ 300,000
- ③ 당기순손실 ₩ 400,000, 당기포괄손실 ₩ 500,000
- ④ 당기순손실 ₩ 400,000, 당기포괄이익 ₩ 300,000

10. ②

당기순익 : ₩900,000-₩500,000=₩400,000

기타포괄손익 : ₩300,000-₩400,000=(₩100,000)

총포괄손익 : ₩300,000

11.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 400,000(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말 동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20×2년 10월 1일 동 건물을 ₩ 200,000에 처분하였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① ₩ 0
- ② ₩ 50,000 증가
- ③ ₩ 50,000 감소
- ④ ₩ 100,000 감소

11. ①

(1) 20×2년 감가상각비 : ₩200,000/3×9/12=(₩50,000)

(2) 20×2년 10월 초 장부금액 : ₩200,000-₩50,000(1)=₩150,000

(3) 20×2년 처분손익 : ₩200,000-₩150,000=₩50,000

(4)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3)=₩0

12. ,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 ②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 ③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12. ④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13. 다음은 (주)한국의 재무 자료이다. 당기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이 ₩ 150,000일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기초	기말
재고자산	₩ 15,000	₩ 21,000
선급금	₩ 7,000	₩ 15,000
매입채무	₩ 6,000	₩ 10,000

- ① ₩ 134,000
- ② ₩ 140,000
- ③ ₩ 152,000
- ④ ₩ 168,000

13. ②

IS조정 : (-)₩140,000

BS조정

재고자산 증가 : (-)₩6,000

선급금 증가 : (-)₩8,000

매입채무 증가 : (+)₩4,000

CF : (-)₩150,000

14. (주)한국의 20×1년 A주식(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4월 1일 처음으로 A주식 100주를 주당 ₩ 5,000에 매입하고, 거래수수료와 함께 ₩ 50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9월 1일 A주식 50주를 주당 ₩ 6,000에 매도하였다.
- 결산일 현재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 7,000이다.

- ① ₩ 45,000 증가
- ② ₩ 50,000 증가
- ③ ₩ 145,000 증가
- ④ ₩ 150,000 증가

14. ③

- (1) 거래원가 : (₩5,000)
- (2) 처분손익 : 50주×(₩6,000-₩5,000)=₩50,000
- (3) 평가손익 : 50주×(₩7,000-₩5,000)=₩100,000
- (4) 당기손익 : (1)+(2)+(3)=₩145,000 증가

15. 당기에 총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ㄱ. 당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15. ②

정기적교체의 경우 미래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총당부채인식 대상이 아니다.

16. ( )한국이 취득한 A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한국은 20×1년 초에 A사채를 공정가치 ₩ 100,000에 취득하고, 거래원가 ₩ 1,000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A사채의 공정가치는 ₩ 100,000이다.

- ① 최초 인식시점에 A사채를 ₩ 101,000으로 측정한다.
- ② A사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③ 만약 (주)한국이 A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당기손익은 달라진다.
- ④ (주)한국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A사채를 보유한다.

16.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의 당기손익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은 동일하다.

1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③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17. ②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한다.

- ③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1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의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 ②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 ③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 ④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연납액 또는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

18. ④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19.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예상 총제조간접원가를 예상 총배부기준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②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원가를 사용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을 사용한다.
- ③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 과대배부액이 발생하고,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작은 경우 과소배부액이 발생한다.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계정에서 전액 조정한다면 '(차) 매출원가 × × × (대) 제조간접원가 × × ×'로 분개가 이루어진다.

19. ③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 과소배부액이 발생하고,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작은 경우 과대배부액이 발생한다.

20.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생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에 들어갈 값은?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기초재공품	5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input type="text"/> )
당기착수량	800단위
당기완성량	900단위
기말재공품	4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25%)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900단위

- ① 20%
- ② 40%
- ③ 80%
- ④ 100%

20. 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완성

기초착수완성 : 500개×80%=400개

당기착수완성 : (900개-500개)=400개

기말 : 400개×25%=100개

완성품환산량 : 900개

∴ 그러므로 기초재공품완성도는 (1-80%)인 20%이다.